

2024.06.21.(금) 증권사리포트

샌즈랩

생성형 AI 보안에 필수요소, 사이버 인텔리전스

[출처] 키움증권 김학준 애널리스트

아시아 최대 보안 데이터셋 보유 업체

샌즈랩은 작년에 새롭게 런칭한 CTX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LLM 연동 서비스인 'CTX for GPT'를 선보였으며 기존 데이터셋 기반의 CTX 데이터셋,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인 MNX(네트워크 실시간 감지)의 판매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보안 솔루션의 성능은 로우데이터 학습량이 좌우하는데 동사가 보유한 데이터셋은 300억여개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아직까지는 CTX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데이터셋 지적 자산 및 MNX를 통한 매출이 크게 확대될 경우 이익률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GS인증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업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부 플랫폼들의 오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을 해주는 사이버 인텔리전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보안 관련 공공에서 벗어나 전 부문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MS협업을 통한 관련 서비스 런칭 확대 전망

동사는 상반기 한국 MS와 차세대 AI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윈도우 보안 및 클라우드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사가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옵션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의 제품들이 사이버 인텔리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악성코드 분석 및 공격그룹, 타겟 국가 및 공격 시나리오 분석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위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 향후 동사의 CTX와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의 연동에 따른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도메인에 특화된 생성형 AI 사이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실적 확대 및 고객사 협업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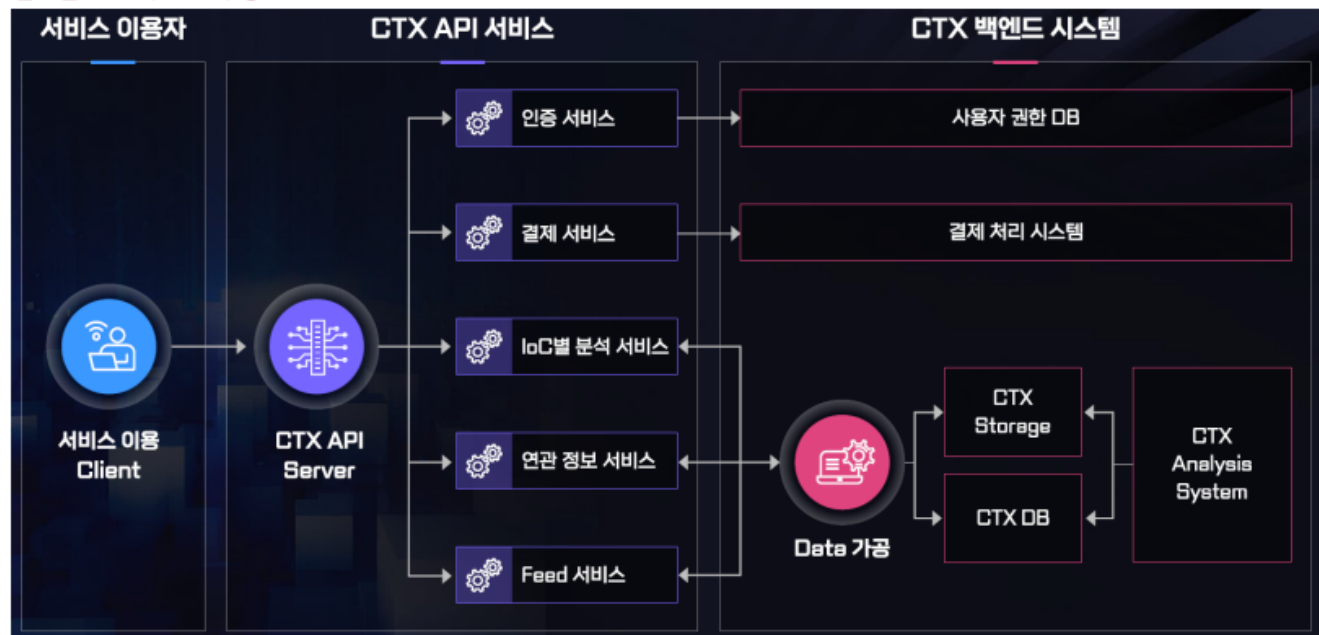
동사는 보안업체 및 국가기관 중심의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의 대부분이 4Q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해당 MS관련 협업 성과로 서비스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된 매출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은 CTX의 성과 및 공공부문 매출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 148억원(YoY +25.9%), 영업이익 2억원(YoY 흑자전환)이 전망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5.2	5.4	9.3	11.7
영업이익	-0.1	0.5	2.1	-0.9
EBITDA	0.0	0.6	2.4	-0.4
세전이익	0.0	0.5	2.1	0.0
순이익	0.0	0.7	2.2	0.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0.0	0.7	2.2	0.4
EPS(원)	-4	61	180	30
증감률(% YoY)	NA	흑전	193.7	-83.5
PER(배)	0.0	0.0	0.0	264.8
PBR(배)	0.00	0.00	0.00	2.92
EV/EBITDA(배)				-227.9
영업이익률(%)	-1.9	9.3	22.6	-7.7
ROE(%)	-1.1	16.3	62.8	2.1
순차입금비율(%)	-75.6	-104.1	-345.0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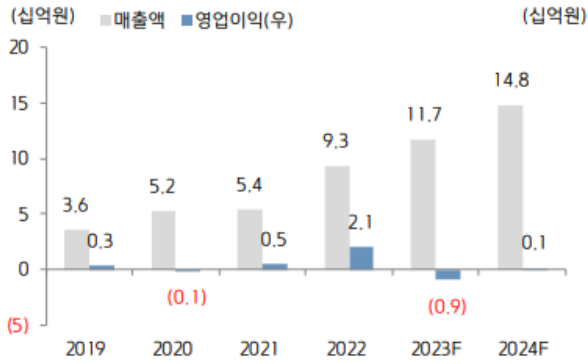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샌즈랩 CTX의 API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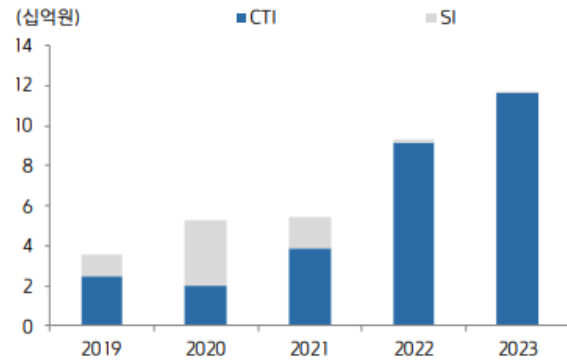
자료: 샌즈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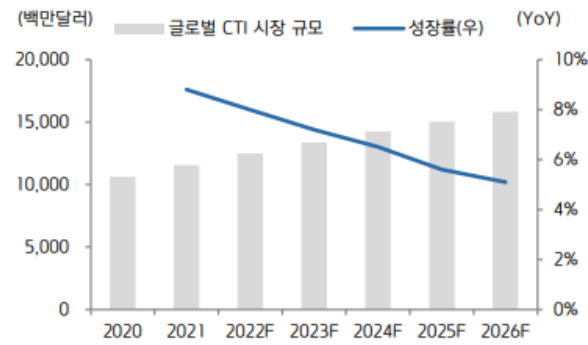
자료: 샌즈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샌즈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CTI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샌즈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TX 주요 기능

주요 기능

- ① 빅데이터 기반의 악성코드 수집, 분석, 공유 플랫폼
- ②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및 위협정보 탐지
- ③ 인텔리전스 서비스
- ④ API
- ⑤ Feed 서비스 (수집 정보 역제공 서비스)

자료: 샌즈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J대한통운

중장기 기회 요인은 충분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매출 성장률 둔화로 이미 밸류에이션 하락, 반등 여지는 있다

투자의견 Buy을 유지하나, 목표주가 153,000원으로 8% 하향. 부진한 내수 소비에 따른 택배 물동량 성장률 둔화, 소형 화물 비중 증가에 따른 구조적 택배 단가 하락을 반영하여, 중장기 Target ROE를 8.5%로 기존 추정치 대비 6% 하락한 것에 기인. 다만 물류 아웃소싱,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이익 안정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현 주가는 24년 기준, PER 7.8배로 기대감이 소멸된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하락. 부진한 내수 소비, 직구 규제 우려로 물동량 관련 우려 존재. 택배 부가서비스 과금 시점도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택배 단가가 제한적이지만 하락하고있다는 점도 외형 성장률 둔화 요인. 하지만, 물류 아웃소싱에 따른 견조한 W&D(물류창고, 유통) 외형 성장세, 구조조정에 따른 글로벌 사업부 수익성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계약도 점유율 변화 없이, 양호한 가격으로 재계약에 성공, 신세계 그룹과의 협력 강화로 신규 화물도 하반기부터 유치 예정

2분기, 전 사업부에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매출액 3조715억원(+3.7% y-y), 영업이익 1,210억원(+7.6% y-y, 영업이익률 3.9%)를 기록할 전망. 택배 물동량은 전년대비 4.5% 증가, 단가는 1.3% 하락 전망. 택배 시장점유율은 44.5%로 높아질 전망. CL(계약물류) 내에서는 W&D부문 외형 성장세가 10% 수준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글로벌 사업부도 포워딩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 소폭 개선 기대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11,768	12,322	12,949	13,432
증감률	-3.0	4.7	5.1	3.7
영업이익	480	542	590	620
증감률	16.6	12.8	8.9	5.1
영업이익률	4.1	4.4	4.6	4.6
(지배지분)순이익	225	289	344	387
EPS	9,854	12,665	15,101	16,951
증감률	23.8	28.5	19.2	12.3
PER	12.9	7.8	6.5	5.8
PBR	0.8	0.6	0.5	0.5
EV/EBITDA	4.4	1.4	1.3	1.0
ROE	6.3	7.8	8.8	9.0
부채비율	131.4	119.9	103.1	90.1
순차입금	1,349	1,026	910	543

단위: 십억원, %, 원, 배





선바이오

업데이트

[출처] 하나증권 박재경 애널리스트

PEGylation 전문 기업: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에서 연료전지, 인공 혈액까지

선바이오는 PEG(Polyethylene glycol, 생체적합 고분자)에 반응기를 더한 PEG 유도체를 목표 물질에 결합해 혈중 반감기를 늘리는 PEGylation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22년 10월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선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PEGylation 기술을 접목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은 Intas Pharma에 기술이전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Neulasta 바이오시밀러와 구강건조증 치료제 MucoPEG이다. 선바이오는 23년 매출액 123억원, 영업이익 52억원, 24년 1분기 매출액 19억원,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24년 1분기 기준 Neulasta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로열티는 매출액의 31.1%, 원료 매출액은 매출액의 61.1%를 차지한다. 23년 5월 선바이오는 사업 목적으로 2차전지 및 연료전지 전고체 전해질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관련 소재 생산 및 판매 사업 진출을 추가했다. PEGylation 기술을 전해질 개발에 접목시킨다는 계획으로 이차전지 관련 특허 2건을 인수했으며, 25년 6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와 연구 개발을 체결했다. 또 다른 신규 사업 영역은 인공 혈액이다. 23년 7월에는 인공혈액 파이프라인에 대한 초기 연구 및 비임상 시험을 시작했다.

핵심 파이프라인- 로열티를 수령 중인 NeuPEG과 구강건조증 치료제 MucoPEG

Neupeq은 미국을 제외한 인도, 캐나다, EU에서는 파트너사 Intas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23년 로열티는 37억원, 24년 1분기 로열티는 약 6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진출을 위해 Neupeg은 FDA 품목허가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제조시설 실사 결과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다. MucoPEG은 19년 11월 의료기기로 FDA 승인을 획득했다. 기존에는 점성을 증가시켜 수분 증발을 막는 CMC(Carboxymethyl cellulose) 성분을 포함한 인공타액 제제가 상용화 되고 있으나, 효과의 지속 시간이 짧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MucoPEG은 PEGylation 기술을 적용해 보습 지속성을 늘린 제제로, 4개 구조의 PEG을 활용했다.

MucoPEG은 20년 12월 PharmaSolution에 중국 권리를 기술이전 했다. 현재는 소규모 예비임상이 진행된 상태로, 임상이 진행되며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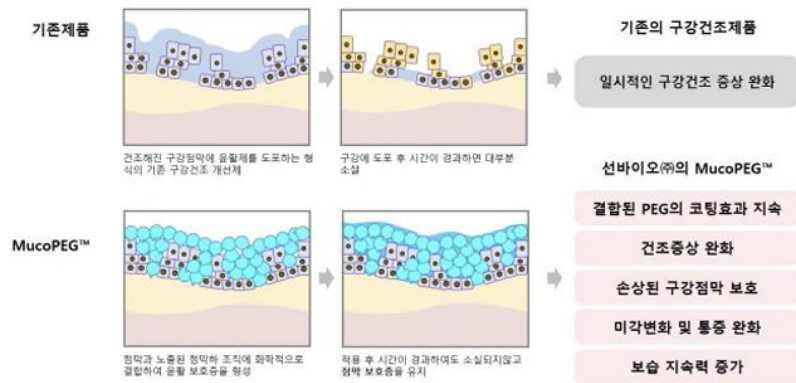
추가 고객사 확보와 신공장 증설

선바이오는 기술 이전한 업체 외의 다른 고객사에도 PEG 유도를 공급하고 있다. 고객사로 Reliance Bio 등이 있다. 현재 인천 남동공단 내에 Neupeg의 FDA 품목허가 승인과 MucoPEG의 마케팅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를 대비해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사 기간은 소폭 연장돼, 기존의 24년 4월 30일에서 24년 7월 31일까지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공장의 본격적인 가동 시점은 25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GMP 수준의 PEG 유도체 제품 생산 Capacity가 현재 수준 대비 20배 증가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5.5	10.0	7.4	12.3	
영업이익	1.6	3.4	0.2	5.2	
세전이익	1.2	1.1	0.9	5.5	
순이익	1.2	0.3	0.9	4.6	
EPS	104	25	73	374	
증감율	(18,11)	(75,96)	192,00	412,33	
PER	139,75	1,060,70	151,97	30,20	
PBR	18,54	19,44	5,70	4,91	
EV/EBITDA	69,89	70,60	145,16	24,44	
ROE	14,79	2,35	4,43	17,74	
BPS	788	1,337	1,955	2,301	
DPS	0	0	50	75	

도표 2. MucoPEG의 기존 제품 대비 경쟁력

MucoPEG의 기존 제품 대비 경쟁력



자료: DART, 하나증권



DGB금융지주

Conference day

[출처] IBK투자증권 우동형 애널리스트

연간 성장 가이드스 변경

연초 연간 원화대출 성장 가이드스는 8% 였지만 이를 6~7%로 조정. 8%의 가이드스는 CET-1 비율 1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 동사는 2024년 목표 CET-1 비율을 11.5%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출 성장을 낮춰 RWA를 관리할 예정. NIM은 하반기 2회 금리인하를 가정하여 연간 10bp 수준의 하락을 예상. CCR의 경우 2023년 88bp 대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자사주 매입/소각은 3분기 이후 대략적인 연간 이익을 보고 결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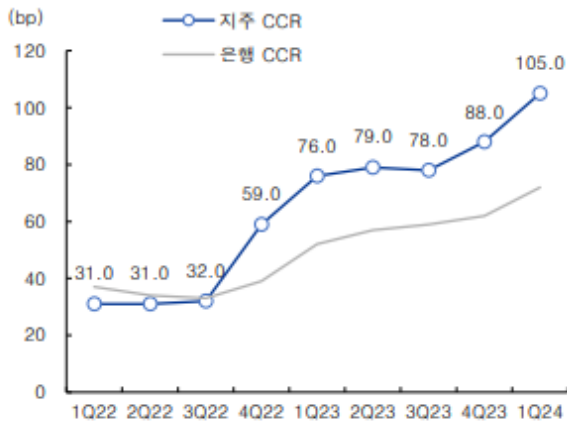
2분기 이후 부동산PF 우려 Peak out

상반기 대구은행 원화대출성장은 5% 수준이 예상됨. 1분기 성장은 2.8%이며 4~5월 성장은 2.1%임. 4~5월 기준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 위주로 1.6%,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2.8% 성장함.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위주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NIM은 4월 및 5월 각각 2bp 하락하였음 총당금의 경우 2분기에 증가 폭이 클 것으로 보임. 금융당국에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편하였으며 부동산 익스포저에서 후순위 비중이 높은 증권 자회사의 총당금적립이 불가피한 상황임. 1분기 기준 증권 자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 기준 브릿지론 비중은 45%이며 총당금 적립 비율은 18% 수준임. 증권 자회사의 경우 2024년 총당금은 2023년 대비 더 많이 쌓을 예정. 다만 DGB금융지주는 해외대체투자 익스포저가 없으며 2분기 이후 CCR은 Peak out 하며 부동산PF 관련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시중은행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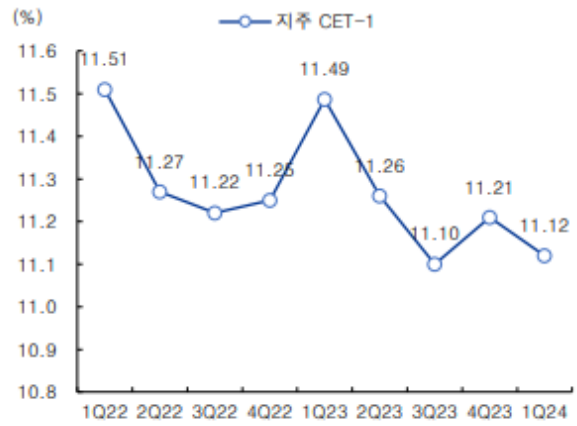
대구은행은 지난 5월 16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았음. 현재 전체 여신의 70%가 대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여신 비율을 50:50으로 만들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것임. 1분기 기준 원화대출에서 기업대출의 비중은 61.2%이며 기업과 가계대출 비중 역시 50:50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점포 확장은 14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점포 확장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시중은행 전환 관련 비용은 PRM 제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PRM제도 관련 지표는 여신뿐이지만 2분기부터 다른 성과 지표도 업데이트할 예정 *PRM 제도: 은퇴한 시중은행 지점장을 영입하여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방식

그림 1. CCR 추이 (누적 기준)



자료: DGB금융지주,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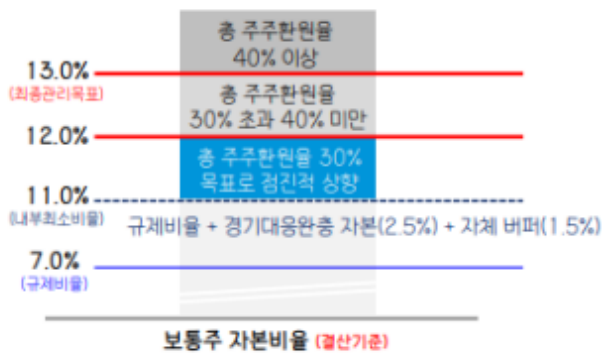
그림 2. CET-1 비율 추이



자료: DGB금융지주,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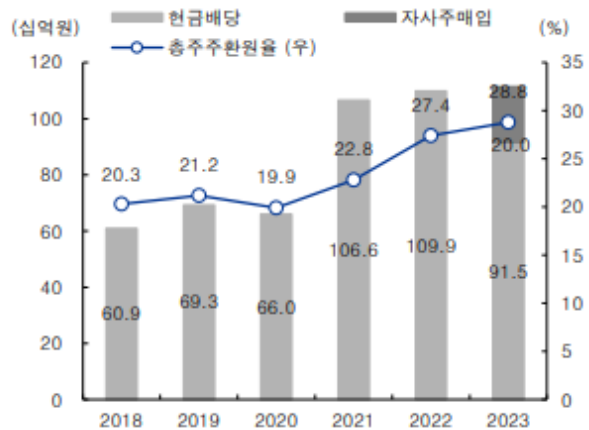
주: 1Q24 마감기준 CET-1 비율은 11.12%로 실적발표 기준 11.07% 대비 상승

그림 3. 총기 주주환원정책



자료: DGB금융지주, IBK투자증권

그림 4. 총주주환원율 추이



자료: DGB금융지주, IBK투자증권



SOOP

실적 개선과 해외사업 모멘텀

[출처] 유안타증권 이창영 애널리스트

해외사업: 글로벌 성장의 꿈

6/5 해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론칭. 태국 현지 상위 스트리머 콘텐츠 증가로 인해 트래픽 증가 중. 태국은 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에서 중국, 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e스포츠가 발달. 한국처럼 향후 라이브 스트리밍 성장 잠재력 높음. '2024 태국 발로란트 챌린저스' 독점 운영, 당구 등 동남아 인기 콘텐츠 확대, 국내 아프리카 TV 인기 콘텐츠 글로벌 동시 송출 등으로 글로벌 트래픽 확장 기대

2분기 Preview

트위치 고과금 사용자들의 동사 플랫폼 이전 효과로 1분기 Paying Rate이 3.5%에서 4.5%로 급증. 이러한 증가된 유료결제자 및 ARPU는 2분기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플랫폼 매출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고성장(YoY +24% 추정)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광고매출도 2분기 시장 성수기 효과 및 2분기 시작되는 게임 리그들에 따른 콘텐츠 매출 증가로 QoQ 급증(+37%) 전망

결론적으로 2분기 매출액 1,032억원(YoY +19%), 영업이익 307억원(YoY +30%)로 고성장은 유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4만원 유지

동사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해외사업 시작에도 주가는 하락, ROE 32.4%에도 현재 24년 PER 11.2배 수준의 저평가 구간. 2분기 및 하반기 지속적인 실적 개선 및 해외사업 확장에 따른 성장성 회복 모멘텀을 주요 투자포인트로 매수 추천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2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03	19.0	8.7	104	-1.2
영업이익	31	30.0	7.7	29	7.4
세전계속사업이익	35	26.6	9.6	32	9.5
지배순이익	27	17.4	8.8	24	9.4
영업이익률 (%)	29.8	+2.5 %pt	-0.3 %pt	27.4	+2.4 %pt
지배순이익률 (%)	25.9	-0.4 %pt	0	23.4	+2.5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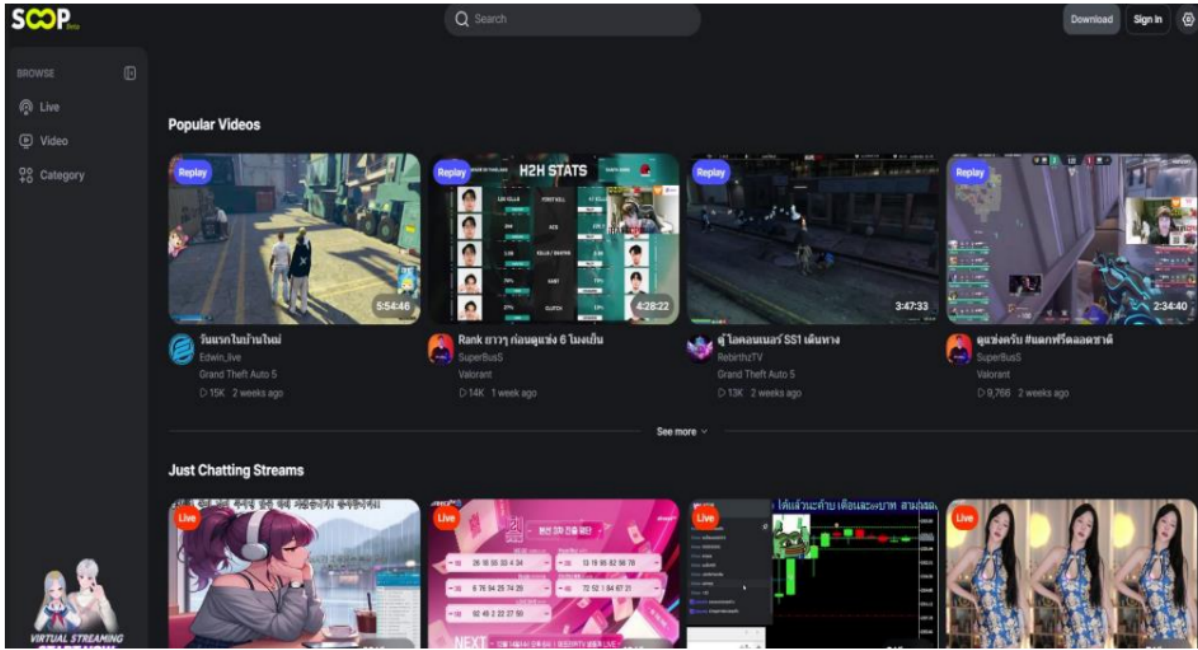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315	348	435	464
영업이익	82	90	129	144
지배순이익	60	75	108	123
PER	20.3	12.0	11.3	9.9
PBR	4.8	2.9	3.0	2.3
EV/EBITDA	9.5	5.0	4.9	3.8
ROE	26.5	28.0	32.4	28.5

자료: 유안타증권

해외 SOOP 플랫폼



자료: WWW.SOOLIVE.CO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Oil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한 구간

[출처] NH투자증권 최영광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하향하나 현재 주가는 단기적 업황 부진을 충분히 반영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87,000원으로 6% 하향. 유가, 정제마진 등 영업지표 둔화에 따른 비교기업 주가 하락을 반영해 석유관련 사업부문 멀티플을 기존 5.9배에서 5.5배로 하향한데 기인. 밸류에이션 시점은 2025년으로 변경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단기적 수요 모멘텀 둔화로 인해 1분기 7.3달러에서 2분기 3.5달러로 하락했으나, EIA는 2024년과 2025년 중국과 인도 중심의 수요 성장 및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선박 운항거리 증가를 반영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OPEC+의 자발적 감산 연장으로 2025년까지의 석유 수급 밸런스는 보다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S-Oil 주가는 PBR 밴드 최하단에 거래 중으로 단기적으로 부진한 영업 상황을 반영. 하반기 휘발유와 등·경유 성수기 진입에 따라 정제마진 반등 예상하며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

2Q24 Preview: 컨센서스 하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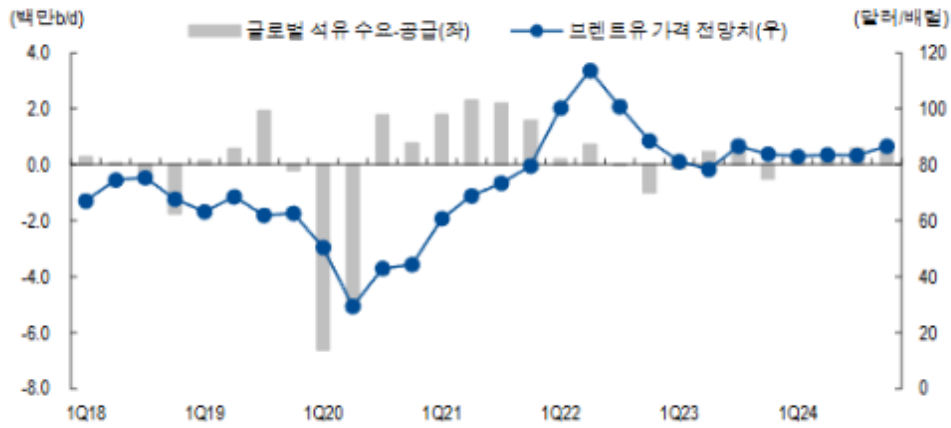
2분기 영업이익 932억원(-79.5% q-q, 영업이익률 1.0%)으로 시장 컨센서스 크게 하회 예상

2월부터 정제마진이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부정적 래깅 효과로 정유부문 영업적자 1,107억원(영업이익률 -1.5%) 기록할 전망. 2분기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분기 평균 대비 5% 상승했으나 그 궤적은 4월 고점 기록 후 하락세 지속. 이에 유가보다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제한적인 재고평가이익(약 330억원) 발생 예상. 화학부문은 아로마틱스 스프레드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35,727	38,335	38,457	37,220
증감률	-15.8	7.3	0.3	-3.2
영업이익	1,355	1,634	1,834	1,897
증감률	-60.2	20.6	12.3	3.4
영업이익률	3.8	4.3	4.8	5.1
(지배지분)순이익	949	947	1,110	1,172
EPS	8,369	8,359	9,792	10,337
증감률	-54.8	-0.1	17.1	5.6
PER	8.3	8.0	6.8	6.4
PBR	0.9	0.8	0.7	0.7
EV/EBITDA	5.6	4.9	4.5	4.3
ROE	10.8	10.1	10.9	10.5
부채비율	138.7	143.1	140.2	131.5
순차입금	3,620	4,842	5,679	5,251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2. EIA의 석유 수급 밸런스 및 유가 전망 - 2024년 하반기 타이트한 공급 상황 지속



자료: EIA 6월 STEO,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1개월 Lagging 정제마진 및 Spot 정제마진 추이



자료: Petronet, S&P Globa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S-Oil 정유부문 영업이익 및 1개월 Lagging 정제마진 추이 - 2Q24 저점에서 반등세



자료: Petronet, S&P Globa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컴투스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

[출처] 키움증권 김진구 애널리스트

동사 목표주가 4.4만원으로 하향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5.9만원에서 4.4만원으로 하향하면서 투자의견을 기존 BUY에서 Outperform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신규 목표주가 산정은 24E 지배주주순이익 281억원에 목표 PER 20배를 적용한 결과로서, 타겟 멀티플은 동사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초기 성과 부진 및 미디어 사업부문의 탑라인 회복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22.5배에서 20배로 하향 조정했으며, 투자의견 하향은 당사 적용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다.

퍼블리싱 사업의 지속 성과가 요구

동사 퍼블리싱 사업의 대표 기대작인 스타시드는 출시 후 매출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는 동 게임의 글로벌 출시에 따른 초기 분기 일평균 매출을 4Q24E 1.3억원으로 추정에 반영했으나 매출 지속성에 대한 중립 이하 가정을 투영해 24E 및 25E 일평균 매출을 각각 8천만원과 6천만원 수준으로 추정에 반영했다. 동사 핵심 캐시카우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24E 매출 증가율은 0.6%를 추정 반영했고, 이는 10주년 이벤트 진행에 따른 자연감소를 방어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나, 올해 프로모션에 따른 기저효과 및 장기 라이브 서비스에 기반한 자연감소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지속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야구 라인업 매출은 24E 1,799억원으로 19.4% 증가하고 25E 일본 라이선스 게임 출시를 감안해 2,024억원으로 12.5% 증가하면서 다소 우호적인 추정치를 반영했으나, 상기 언급한 서머너즈 워의 25E 매출 감소가 자연감소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재무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부연 설명하며 당사는 현재 서머너즈 워의 25E 매출 감소율을 3.5% 수준으로 추정에 반영하고 있다.

미디어 사업의 탑라인 회복이 요구

당사는 최근 미디어/콘텐츠 사업부문의 탑라인 감소를 감안해 24E 동 부문의 매출이 1,333억원으로 2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반영했으며, 향후 미디어 사업부문은 철저히 가시적 성과 기반 추정치로 조정 예정이다. 다만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해 동 부문의 24E 영업적자가 전년비 125억원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우호적 가정은 여전히 투영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미디어/콘텐츠 사업부문의 탑라인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무형자산 손상차손 발생을 추가 산입한 결과, 24E 지배주주지분은 기존 대비 15.7% 하향 조정하였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677.3	739.6	685.6	701.5
영업이익	-15.1	-33.2	-11.2	-21.2
EBITDA	18.5	-6.2	10.6	1.6
세전이익	3.9	43.0	4.6	9.0
순이익	-9.3	42.1	2.1	6.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33.4	39.8	28.1	30.4
EPS(원)	2,593	3,093	2,208	2,388
증감률(% YoY)	-74.2	19.3	-28.6	8.2
PER(배)	23.0	15.9	17.0	15.7
PBR(배)	0.67	0.56	0.43	0.42
EV/EBITDA(배)	49.2	-118.9	54.6	373.1
영업이익률(%)	-2.2	-4.5	-1.6	-3.0
ROE(%)	2.9	3.5	2.5	2.7
순차입금비율(%)	-2.9	-0.9	0.5	2.4

